

전라남도 흥양 도서(島) 민가와 근대기 울릉도 민가의 상관성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lk houses in Heung Yang-islands and the Ulleung-island Folk houses in Modern Age

문 정 민*

Moon, Jeong-Min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정 명 섭

Chung, Myung-Sup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lk houses in Heung Yang-islands and the Ulleung-island Folk Houses in Modern Age. Fork houses reflect cultural and geographical features synthetically and concretely. Fork houses contain the thoughts of residents and have been built rationally and economically, therefore studying fork houses is a very meaningful task. This study has a focus on the elements which influenced fork houses of Ulleungdo at the time when fork houses were constructed officially. There have been studies on fork houses of Ulleungdo limited in embrasive characteristics, space construction and arrangement.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the element and background of Ulleung-island Folk Houses in Modern Age.

주제어 : 울릉도 민가, 울릉도, 흥양 도서, 해양문화, 거문도

Keywords : Ulleung-island Folk Houses, Ulleung-island, Heung Yang-islands, Culture of oceanic, Geomun- islands

1. 연구 배경과 목적

근대기 울릉도를 바라봄에 있어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국가에 의해 정책적으로 개척된 섬’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역사상 특정 섬이 개척되는 준비 과정과 개척 직후 상황이 명확하게 전해지는 사례는 울릉도가 유일무이한 것 또한 이와 관련이 깊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연구는 ‘독도 연구’라는 큰 사명에 가려져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한편, 도서(島)에 관한 연구는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해당 도서 연구는 그 모섬(母島)²⁾의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 민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모체가 되는 섬으로부터 이해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약 6년 전 관련 연구³⁾를 통해 근대기

2) ‘모섬’이라는 용어는 해양문화사 연구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특정 도서(島) 지역에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준 도서(島)를 뜻한다. 쉬운 예로 울릉도는 독도의 모섬(母島)이 되고, 역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자섬(子島)이 된다. 마찬가지로 울릉도 역시 또 다른 섬의 자섬(子島)이 되는 것이다.

3) 문정민, 장현덕, 『울릉도 민가 형성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11.

본문에 앞서, 이전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근대기 울릉도에 존재했던 민가는 고종의 울릉도 개척령(1883년)을 계기로 본격적(합법적)으로 만들어졌다.

② 울릉도 민가는 ‘태백 산간지역 민가’에서 파생되었다는 이전 학설들과 함께 전남 해안 지방인 낙안지역과 흥양 도서 지역(거문도, 초도, 죽도 등)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개척령 공포 이전부터 수백 년을 울릉도와 전남 해안을 오가며 살아온 이들과 관련성이 깊다.(1883년 울릉도 공식 개척이 있기 직전 1882년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울릉도에는 조선인이 총 141

* Corresponding Author : moon.s@hanmail.net

1) 울릉도는 고대로부터 많은 개척 시도가 있었으나, 항해술의 미발달과 현지의 혹독한 자연환경(폭설 등)에 의해 번번이 개척(장기적·지속적 거주)에 실패했다. 그러던 것이 1883년 고종의 울릉도 개척령이 시발점이 되어 본격적인 개척이 이뤄졌고, 당시 입도한 이들이 입도조(入島祖)가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8 논문

울릉도 민가가 전남 일부 도서 지역, 순천 지역, 경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 그리고 당시 울릉도에 거주한 일본인들과도 관련이 있음을 추론하였다. 그러나 당시 연구에서 울릉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전남 홍양 도서지역 민가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 도서지역 민가가 현재까지 학계에 연구된 바가 전무하여, 도면이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인근 지역 민가로 연구 대상을 대체한 자료적 한계도 있었다.

그리하여 6년 전 선행연구 이후 근대기 울릉도 민가의 본질을 좀 더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2011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거문도, 초도, 죽도를 직접 돌며 현존하는 민가에 대한 실측과 주민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시 두 지역(울릉도와 홍양 도서) 민가의 상관관계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실증 자료 수집과 심층 분석이며, 이를 통해 울릉도 민가의 본질과 그 형성 배경을 좀 더 면밀히 밝혀내는 것이 연구의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양 문화교류를 통해 전파된 건축양식이 울릉도라는 특정 지역의 기후, 식생 조건, 경제생활, 문화교류, 정치적 상황 등에 의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끝으로 울릉도 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홍양 도서 지역 민가가 거의 사라져가는 현 시점에서 이들 지역 민가가 갖는 건축 역사학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학계에 알리는 것에도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대상

본 연구에서는 고종의 개척령(1883년) 발표 직후 울릉도와 홍양 도서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①사료조사, ②주민 면담조사, ③현지조사(실측 등)를 실시하였다.

「사료조사」는 울릉도 개척 시점(1883년)이 당시 신문 매체 발달과 맞물려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어 발행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현지조사 시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사진·도면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주민 면담조사」는 울릉도 및 홍양 도서에 3대 이상 거주한 1940년 이전 출생자들로만 선별·진행하였고, 해양 문화사 연구자들의 기존 연구 자료도 일부 참고하였다.

명 있었는데 그 중 82%에 해당하는 115명이 전남 낙안과 홍양 도서(거문도, 초도, 죽도) 출신이었으며, 141명 중 129명이 배를 만드는 목수였다. 이들은 1년을 주기로 매년 봄에 울릉도에 입도하여 그 해 가을 전후로 여러 척의 배를 만들어 해산물 등을 가득 싣고 다시 고향(전남)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수백 년 영위하였다.)

「현지조사」는 앞서 언급한 주민 면담조사와 함께 진행한 해당 지역 민가의 수실측(9채)이 주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실측조사 또는 검토·분석한 민가의 전체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⁴⁾

표 1. 조사 민가 목록

지역	대상 민가	건립연대	자료유형
전남 홍양 도서	거문도 민가	19세기 말	사 진
	초도 민가 1	20세기 초	실측 약장
	초도 민가 2	20세기 초	실측 약장
	초도 민가 3	20세기 초	실측 약장
	초도 민가 4	20세기 초	실측 약장
	거문도 덕촌 민가	20세기 초	실측 약장
	거문도 삼산면 민가	20세기 초	실측 약장
	거문도 동도리 민가	20세기 중	실측 약장
	죽도 민가 1	20세기 초	실측 약장
	죽도 민가 2	20세기 초	실측 약장
울릉도	나리동 민가 1	1917 추정	사 진
	박○용 민가	1930년대	사 진
	나리동 민가 2	20세기 중	사진·도면
	현포리 민가 1	1917 추정	사 진
	현포리 민가 2	1917 추정	사 진
	현포리 민가 3	1917 추정	사 진
	나리동 투막집	20세기 중	도 면
정기록 민가	20세기 중	도 면	

3. 관련 사료 분석 및 주민면담 조사

3-1. 발행 기사 내용 검토

당시 기사 내용 중 개척민의 생활상 또는 민가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1887년부터 시간순대로 요약·정리하였다.⁵⁾

4) 현지에 19세기 말 이전 민가는 대부분 사라진 실정이며, 실측민가는 1900년대 초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5) 본 기사 내용은 주장현, 『울릉도 개척사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2009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요약 정리한 것이다. 지면 여건상 당시 신문기사의 원문을 옮기지는 않고, 해당 기사의 주요내용 또는 기사 내용을 토대로 추론 가능한 사실들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6) 개척 이후 4년간 경과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 증가

표 2. 관련 기사 내용 요약

발행일	내 용	비 고
1887.48	독립신문 울릉도 개척 이후 최초의 인구 및 가옥 분포현황 조사(총 1134명) 6)	인구 관련
1899.9.23	황성신문 기사에서 최초로 배 짓는 목수가 등장. 울릉도에서는 질 좋은 목재가 다양하게 생산되어 섬 밖(일본 포함)으로 보내졌고, 주로 규목(느티나무), 향목, 백자목(갯나무), 감탕목 등이 있었음	목수 및 목재
1899.1.19	독립신문 조선인 몇 명이 외국인들에게 목재를 몰래 팔아먹는 상황을 상부에 보고함	벌목 관련
1899.4.14	독립신문 일본인들이 무단으로 울릉도에서 벌목을 하고, 집을 지어 무단 거주함	일본인 무단거주
1899.10.25	독립신문 일본인들이 산림을 무단 작벌하고, 총으로 조선인을 위협함	일본인 관련
1899.12.7	황성신문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당시 울릉도 내 산림이 타국(일본, 러시아)에서도 탐낼 정도로 풍부했음)	벌목권 관련
1900.3.10	황성신문 일본인들의 무단 벌목 수출에 관한 도감의 보고	일본인 벌목
1902.4.29	황성신문 일본인의 벌목 횡포(오히려 일본인들은 조선인의 벌목에 대해 일본인의 허가 없이 불가하다며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고시를 하였으며 실제 체포자들이 발생하기도 함)	일본인의 횡포
1908.4.22	대한매일신보 지난 17일 큰 우박이 40분 간 내렸는데, 아랫 동네(해안)에는 한자나 쌓였음	기후(우박)
1909.5.8	대한매일신보 조선인 4천명, 일본인 6백 명(조선인이 19세기 말 약 1100명이었으므로, 10년 사이에 약 4배 증가)	인구 관련
1928.9.6	동아일보 기사를 쓴 기자가 취재 중 울릉도 남양동에서 김중수(1854년생) 노인을 만남. 이 노인은 전남 삼도(거문도 사건) 사건의 어수선함을 피하기 위해 전남 강진에서 피난을 왔다고 하며, 개척령 당시에 들어온 4호 중에서 취재 때가 지 울릉도에 남은 유일한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함	개척 1세대 주민 취재
1928.9.7	동아일보 대대로 울릉도의 건물은 얼른 보아 일본 산음지방의 것과 비슷하고, 벽도 널찍이오, 지붕도 널찍이오, 굴뚝도 널찍이오. 나무가 흔한 탓으로 널찍으로 꾸며져 있는데 바람이 심하여 운두를 높이지 못하고 또 지붕에는 큼직한 돌을 눌러 놓았다. (이상은 취재 기자의 소견임, 널찍이 쓰인 가옥이 조선인 가옥인지 일식 가옥인지 확인 불가) 동아일보 대풍감의 전설 :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울릉도 대풍감(待風坎)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뜻으로, 전라도 사람들이 입도하여 약초 등을 캐고, 새로운 배를 만들어 다시 고향으로 떠날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지명이 유래했다 함	민가의 모습 대풍감 지명 분석(전남 해안인들이 작명)
1928.9.12	동아일보 당시 인구는 조선인 1522호(9663명), 일본인 152호(531명), 중국인 4호(10명), 도합 1678호에 10194명이 함께 살았으며, 재산 규모별 조선인·일본인 비교 조사를 실시함)	인구 현황 및 경제수준 비교
1934.1.27 ~ 1934.1.31	동아일보 1월 1일부터 오던 눈이 그치지 않아 적설량이 30척이 넘고 교통은 완전히 두절 되었으며, 인축 가옥 피해는 집계조차 불가했음. 발견된 시체가 30구가 넘고, 나무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눈이 왔음. (이와 같은 울릉도의 혹독한 기후와 피해 상황 보도는 이후에도 자주 이뤄졌다.)	기 후 (폭설 피해)
1934.2.6	동아일보 폭설 구호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산간 벽지의 가옥 분포가 약 10여리를 가서 3~4호, 2~3정 가서 1~2호씩 있어 수 개월이 걸릴 것이라 판단함	가옥 분포
1934.11.6	동아일보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릉도민을 북한지역 광산노동자로 이주시키기로 함 (1만 2천인의 인구가 섬의 규모에 비해 많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빌미로 난민을 광산노동자로 이주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를 볼 수 있음)	재 이주 추진 (일본 주도)
1934.11.27	동아일보 농업 중심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피력. 인구 1만1천8백2명 중 5백 57호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기근이 창궐	농업의 어려움
1934.12.5 ~ 1934.12.9	동아일보 이주민 429명이 탄광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설명. 이주민에는 초창기 개척민과 이후 개척민 모두가 포함되어 있음. 함정도 및 서북 탄광-사리원 등이 주 이주처였으며, 총독부에서 이주를 적극 추진함	재 이주 추진 (일본 주도)
1934.12.10	동아일보 울릉도에서 조선인은 굶주린 생활을 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오징어 풍어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음	궁핍한 생활과 일본인의 풍어
1934.12.11	동아일보 울릉도에서의 농사 방법 설명 : '운돌논'에 의한 경작(운돌논 : 흙이 흔하지 않은 울릉도에서 돌을 돌려쌓아 그 위에 물이 새지 않도록 흙을 소량 바르고, 그 위에 다시 벼를 심을 흙을 추가로 덮어 짓는 20~30평 가량되는 소형 논)	농업 방식
1934.12.15	동아일보 울릉도 기근의 주요 원인을 인구압으로 보고 있으며, 최대 적정 인원이 7천명인데 1만 1천이 살기에는 섬 전체의 경지면적이 도저히 식량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을 설명. 이에 울릉도로 개척하여 들어온 이들이 다시금 외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450명이 울릉도를 떠나 강원 삼척을 거쳐 북상하여 원산에 내려 탄광으로 가게 됨	인구압에 의한 재 이주 추진
1936.7.23	동아일보 산림의 남벌로 문제가 심각해 짐.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나무가 사라질 정도로 심각하여 나무심기 추진 등 주장함	산림 남벌 문제
1936.9.11	동아일보 오동나무, 향나무, 향목, 솔농나무, 섬잣나무, 너도밤나무, 섬댕강나무, 섬개야광나무, 섬백리향, 후박나무, 꾸지나무 등 식생의 균락을 언급	산림 균락 현황
1938.7.2	동아일보 당시 울릉도의 3대 농업은 보리, 감자, 양잠이었으며, 축우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	농업과 축우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년 전 219명) 1887년 당시 총 인구는 1134명으로 집계되었고, 기사 원문에 의하면 울릉도 해안지역인 천부, 현포, 사동, 남양, 장흥이 인구밀도가 높고, 섬 내륙인 나리분지는 거주인이 많지 않았다. 이는 개척 직후 울릉도로 입도한 자들 중 전남 해안 출신자들이 그 밖의 지역 출신자보다 많았음을 의미한다.(뒤에

자세히 살펴보면, 울릉도 개척 초기 입주 경향은 해안 입주(전남 출신자), 내륙 입주(경상도 등 출신자)로 일정 부분 구분된다.)

7) 조선인/일본인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재산이 만원 이상(조선인 0호, 일본인 9호), 오천원 이상(조선인 6호, 일본인 24호), 천원 이상

위와 같이 당시 신문기사에는 개척령 발표 이후 울릉도 현지 상황이 상세히 전해진다. 당시 울릉도의 풍부한 산림 현황(개척~1930년 이전)과 이를 두고 각축을 벌인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사항, 개척령 발표 이후 조선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 배를 짓는 조선인 목수의 존재, 무단 거주한 일본인과 그들의 생활, 겨울철 폭설, 전남 도서 지역에서 온 이들, 전라도 사람들이 작명한 울릉도 지명(대풍감), 민가의 분포, 인구 증가로 인한 재이주 추진, 현지 농업방식, 당시 조선인들의 생활 모습(보리, 감자, 양잠, 축우(牛), 어업) 등 개척령 발표 직후 울릉도 내부 상황이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개척(1883년) 이후 이주민들의 삶은 예상과 달리 매우 피폐했으며, 개척령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는 여전히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였다. 그들은 벌목과 어업에서 많은 수익을 올렸고, 조선인들을 인부로 고용하여 이익을 취하기도 하는 등 섬 내부는 환경적·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척 초기에는 온돌논을 이용하여 일부 지역에서 벼나 수수 등을 경작을 했으나 민가를 짓는데 사용할 만큼 충분한 물량이 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재료 부족이 초기 우데기가 주로 돌로 만들어지는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⁸⁾ 또한, ‘28년 기사에 ‘널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널판을 활용한 민가가 현지에 존재했으며, 지붕곡이 낮은 것은 취재기자의 의견대로 바람이 강한 현지 환경에 의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또 폭설 구호 작업을 위해 나리분지를 찾아갔으나 가옥 간의 거리가 멀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당시 화전(火田)에 익숙한 경상도·강원도 등지에서 온 소수 이주민의 입지 성향과 관련이 깊다. <그림 1>은 1917년 촬영된 나리분지의 모습으로, 사진 가



그림 1. 산촌 형태의 나리동 민가 (도리이 류조 촬영)

운데 한 채의 가옥만 보일 뿐 주변에 다른 가옥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옥 간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이를 뒷받침한다.

이상 개척 직후부터

(조선인 97호 일본인 45호), 백원 이상(조선인 1274호, 70호)로 분포되어 있다. 일본인과 비교하여 조선인들은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돌 우데기가 만들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뒤에 살펴볼 홍양 도서에 존재하는 돌 우데기(2중 외피)와 보다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는 뒤에 4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약 40년 내외의 기사를 통해 울릉도 상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 기사 내용처럼 정치적·환경적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열악한 당시 울릉도에서 이주민들은 그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 과연 어떤 주거환경을 만들었는가이다. 이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 사료조사에 이어 실증적 자료 수집인 현지 주민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3-2. 주민 면담조사

본 절에 언급된 자료는 필자에 의해 직접 조사된 자료(3-2-1, 3-2-2)와 해양문화사 연구자들에 의해 기실시된 자료(3-2-3)로 나뉜다. 면담조사 시 질문요지는 크게 아래와 같다.⁹⁾

- ① 홍양 도서인들이 울릉도로 간 목적
- ② 두 지역의 교류 흔적(건축 포함)
- ③ 홍양 도서 민가의 특성
- ④ 축담 우데기의 형태와 축조
- ⑤ 마구의 위치, 굴뚝의 형태, 전문 목수에 관한 내용
- ⑥ 홍양 도서의 모섬(母島) 등

3-2-1. 울릉도 현지인 면담조사

○ 최○식(1923년생)

“...조부가 경상도에서 건너왔는데, 그때 경상도 양반들은 전부 높은 곳, 농사지을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갔어. 해안에 안 살고 나리동(나리분지) 가서 살았지. 그리 살다가 나중에 토지 정리 할 때 각자 땅을 얼마나 나눠가질지 정하는 게 있었는데, 전부 조금씩만 한다고 했어. 왜 그러냐면, 많이 해봐야 세금 더 내야하니까. 근데 그리 아껴도 위로 올라간(농사를 짓기 위해 나리분지 등 섬 내륙으로 간)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야. 해안 사는 전라도 사람들은 알아서들 잘 살고. 순천 낙안 이랑 거문도 그 쪽에서 많이 왔지. 죄다 배 짓고 해물 캐고 그리 살았어.. 그 사람들 나무 해다가 올려 메고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배 많이 지었지. 집도 거기 짓고, 댄 것도 짓고 그랬지...”

개척 초기 전라도 출신자들과 그 밖의 출신자들의 생활터전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경상도 : 나리분지, 전라도 : 태하, 현포, 학포, 천부, 남양 등 해안지대) 또한, 섬 생활에 익숙한 전라도 출신자들이 울릉도 현지 적용이 빨랐으며, 면담자가 말한 ‘댄 것(다른 것)’은 배를 짓는 자재나 도구를 모아둔 공동작업장 또는 창고, 해

9) 직접 조사한 면담록취 전문은 지면 여건상 모두 신지 못하고 주요 내용만을 축약하였다.

산물 건조장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남 해안에서 온 이들이 바다 생활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섬에서부터 체득한 해양 생활방식이 울릉도 적응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조금 컸을 때, 합방(경술국치) 훨씬 전부터 일본 목수가 울릉도에 있었어. 팔아먹을 나무 벌목하는 벌목쟁이거나, 여기 일본놈 집 짓던 놈들이지..

...투막집은 목수랑 일반인이 손발 맞춰서 빨리 짓기에 제일 좋은 집이야. 돈도 적게 들고, 모서리 서로 파서 끼운 다음에 흠하고 벗짚 같은 거 섞어서 틈에 메우고 그랬어. 그리고 좀 지나서는 일본놈들 집 짓는 걸 좀 보고 우리도 바꿨어. 널판자 우데기가 그때 많아진거야. 나리분지에는 역새가 있으니까 거기는 역새 우데기로 하다가, 나중에 일식집처럼 널판으로 바꾼거지.”

일본 목수의 존재와 울릉도에서 투막집이 현지 기후에 유리한 이유, 판자 우데기가 일본 목수들과의 기술 교류 과정에서 나타났을 가능성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일본인들에 의한 건축양식 변화가 생경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실상 이를 해양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와 관련한 해양문화의 중요한 특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¹⁰⁾

첫째, 해양민들은 자체의 세력들로 정치력을 행사하려는 호족성과,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려는 무정부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또 지역적으로도 한군데에 머물러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해양문화는 모방성, 공유성이 강하다. 서로 다른 곳에서 건너와 생소한 곳에 모여 살며,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접하면 그대로 흉내내서 본인들 것으로 소화해 낸다. 생존을 위해 철저히 공유하는 것이며, 해류·조류·바람·기후조건 등이 유사한 환경에 거주하면서 해양민들 사이에서는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교류는 육지의 문화교류보다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

위와 같은 해양문화의 특성을 토대로 당시 울릉도로 이주한 이들의 생활방식과 건축적 양식 교류를 바라보면,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기술교류에 대한 면담자의 증언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은 내용은 뒤에 이어질 다른 면담자들의 증언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 이 ○(1939년생)

“...해안에는 눈이 와도 염(염분)이랑 바람 때문에 잘 쌓이지가 않아. 우리 살던 곳(나리분지)이랑은 다르지. 바닷가는 눈이 쌓여도 금방 녹아. 전라도 애들이 똑똑했던 거야. 내륙은 눈난리가 나도 해안은 확실히 덜 해. 근데도 그때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보고 쌍놈들이라 그랬어. 우리 어른들(경상도인들)은 뭐 양반이다 그런 자존심 같은 거였지 뭐.. 그래서 동네 애들이 바닷가(전라도 출신자 집단 주거지) 가서 놀고 그러면 막 혼도 냈어..

근데 웃건거는, 고 애들(경상도 출신자들의 자녀)이 조금 크면 이제 바닷가 가서 이거저거 잡아온단 말이지? 잡은 거 팔아서 꼬맹이들이 돈도 만들어 오고. 또 그 돈으로 다른 먹을 걸 사서 집에 갖다준단 말이야. 그때 오징어 50축 주면, 쌀 한포 주고 그랬어. 여기는 그때 물물교환도 했거든. 애들이 바뀌오면은, 인제 애들이 좀 컸으니까 집에 부모들이 뭐라 막 혼내지도 못 하고, 그냥 그거 받아서 집에 식량하고 그랬지..

...경상도 사람들은 동학난 피하고 울릉도에서 잠깐 살다 다시 육지 고향에 간다고들 생각해서 다들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나리동 들어간거야.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술술 해안에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이 생겼지. 뭐 처음에 경상도 출신이어도 양반이 무슨 소용이나 생각한 사람들은 그 짝에(그쪽, 해안) 가서 살기도 했고..

...일본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어. 개들이 기술이 좋았어. 많이 배웠지.. 배 짜는 것도 배우고. 고비끼 톱이라고. 그걸로 널판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 먹줄 놓고 고비끼로 널판을 만들었지. 기계 대패 나오기 전까지 말이야.

...시간 많이 흐르고, 차별하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자기들 출신지를 많이들 숨겼어. 쪽수(인구수)가 경상도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계속 차별하니까. 선거 때도 고향이 충청도라고 바꿔서 말하고 그랬지 ”

경상도 출신자들과 전라도 출신자들 민가 입지의 차이, 울릉도 내륙과 해안의 기후 차이, 나리동에 살았던 경상도 출신자들의 궁핍한 생활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선 최○식 옹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의 목재 가공기술 등 생활에 필요한 일부 기술들을 교류했던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 박○수(1931년생)

“...그때(개척 초기) 전라도 배 들어오는 날은 잔칫날이야. 쌀도 싼고, 고기도 있고, 먹을 걸 한 배 가득 싼고 오니, 얼마나 좋아.. 또 전라도 배 들어올 때, 아예 목수를 여럿 싼고 와. 다시 고향 돌아갈 때는 또 새 배 몇 척에다가 귀목이랑 술송이랑 잣나무랑 미역이랑 죄다

10) 윤명철,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2014, 24쪽



그림 2. 거문도 나선 (거문도 삼산면 제공)

실고 다시 가는거야. 돈도 벌고 새 배 가져가고 좋았지. 그 중에 솔송은 기동으로 쓰면 잘 썩지도 않고 좋아. 다만, 배 만드는 데는 솔송이 무거워서 조금만 쓰고, 집 짓는데 많이 썼지. 집을 어떻게 지었냐, 집 지을 땅에 터를 닦아야 하니깐, 나무를 벨 거 아니야. 그럼 그 나무로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거야. 터 좋고 솔송나무 많은 곳이면 더 좋지.. ... 집 지을 때 판자를 처음에는 나무기둥 하나 두 동강 내면 가운데 큰 거 딱 두 장 나와. 그거 여러 장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빨리 지을 수 있는 거 투막이(투막집)로 했지..

...우리 외가가 전라도야. 어무니가 전라도 함평 이씨지. 할아버지(개척세대) 집이 울릉도 태하였어. 집을 전라도에서 온 조부가 직접 지었는데, 후에 일본놈들 지은 거 보고 좀 바꿨어. 우데기 바꾼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우데기는 돌도 있었고 새도 있었어. 처음엔 돌로 쌓은 집이 많았지. 그땐 섬에 새나 벚단이 얼마 없기도 했고, 여기(울릉도) 밖에 나가는 죄다 돌이잖아. 또 전라도에서도 그리 했으니깐 다들 익숙한 대로 그리 한 거야. 근데 그 돌로 한 게 튼튼하기는 한데 문제가 있어. 돌 사이로 눈보라가 들어와. 전라도는 뽕나무가 이렇게 많이 오기를 하나. 그래서 돌 우데기 쌓은 거 밖으로 새나 벚노 한 번 더 돌르는 거야. 거기다가 돌 사이에는 흙하고 새 자른 거 하고 이겨서 메꾸는 집도 있었고..



그림 3. 1950년 박○수 용이 당시 울릉도 자택 앞 촬영

우리 집에 옛날에 집 앞에서나 젊을 때(19세) 국민학교 선생하고 우리 가족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 이 집은 많이 발전을 한 거야. 일본놈들이 널판으로 막는 걸 보고 바꾼 뒤지.

너와지붕이 울릉도에서는 좀 사는 집이야. 새나 벚단 쓰는 집보다는 더 사는 집이지. 근데 갑자기 뿔 사람들이 나무를 못 베게 하니깐. 별 수 있나, 그때부터 너와로 못하고 뿔 걸로 지붕 할 수 밖에..(울릉도 산림 남벌이 문제가 되

자 정부에서 벌채를 금한 시기가 있었다.)

.. (잠실에 대한 질문) ... 누에를 많이 먹었지. 그래서 '누에 잠(蠶)'자를 써서 잠실이라 그래. 우리 조부집 가면 잠실이 있었어. 거기서 누에 먹이고, 그 걸로 베 짜고 그랬지. 구석에는 작은 독(쌀 등을 둔 장독)이랑 돌아가신 어른들 위패도 두는 집도 있고.."

전라도 배가 입도(入島)하는 상황과 교역 물품, 집을 짓는 데 쓰이는 목재(솔송 등), 집터 잡기, 우데기의 양식 변화, 전라도 목수의 입도, 돌 우데기의 적용과 보완 방법(돌+익새/벼 외피보강+뜸새 메우기), 벌채 금지로 인한 지붕재 변화(너와 → 새/벼)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한편, 잠실에 누에를 먹이는 것과는 별개로 쌀독, 조상들의 위패나 물건 등을 보관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뒤에 4-2. 평면 형식과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3-2-2. 전남 흥양 도서 현지인 면담조사

○ 김○현(1934년생)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울릉도 간거는..사실 어유(魚油)¹¹⁾도 중요했어. 섬 사람들은 그때도 물물교환을 했었어. 그때 어유는 부르는 게 값이야. 쌀 몇 가마니 줘도 잘 안 바꾼단 말야. 근데 울릉도 거 가른 그걸로 단 말이야. 요즘 말로 대박이지. 그걸로 부자 많이 됐어. 여기 거문도는 그게 없거든. 배도 만들어오고 어유도 가져오고 그러니 사람들이 울릉도로 많이 갔지. 우리 조부도 자주 다녔어. 여기 거문도에 조부랑 제삿날이 같은 사람이 일곱이야. 침몰이.. 울릉도 가다 그리된 거야. 거문도에서 울릉도 갈 때 부르던 뱃노래가 아직도 여기 있어¹²⁾ ...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거문도에 울릉도 나무로 만든 집이 정말 많았어. 근데 죄다 흥가가 된 거야. 공부하는 양반들한테나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거 추장스러운 거지. 그래서 집 주인들이 신식으로 집 고치려고 다 뜯었어. 편히 살아야 되자네. 근데 마을 사람들 몇 몇이 그 집들이 중요하다 말하니깐, 그 뜯은 나무들을 당분간 보관하고 있었어.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지.. 옛날에 여 거문도에 좀 산다는 집은 다들 울릉도 나무로 대들보나 기둥이나 마루에 갖다 썼어. 노간주나 귀목도 많았지. 지금 남은 집들도 외부는 많이 고쳤어도 뼈대가 그 때 것으로 남은 집들이 있어. 안 썩는단 말이야 그게. 겉에만 좀 그러고, 속은 멀쩡하거든. 나무가 그만큼 좋아. 내가 알기로는 정○완씨 집이 예전에 선주(배 주인)집이었어. 안채 지으면서 기둥을 울릉도 나무로 했어. 집 뒤에 가면 아직 그게 있어. 철근은 녹이 나지만, 노간주는 속이 아직도 멀쩡해. 것 뿐인가. 집에 절구통이며 다듬이며 그런 건 여기 거문도 나무로 못썩. 다 울릉도 나무로 해다 썼지¹³⁾ ...”

11) 강치(물개의 일종)의 기름. 당시 강치 기름은 호롱불을 밝히는 양질의 원료였으며, 한약재로도 쓰여져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았다.

12) 수백 년 된 '술비소리(거문도 현지 노동요)'는 현재까지도 전해지는데 노래가사는 아래와 같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1호)
간다간다 나는간다 / 울릉도로 나는간다 / 인제가면 언제오나 / 오도록만 기다리소 / 고향생각 간절하네 / 울릉도를 가해보니 / 좋은나무 탐든미역 / 구석구석 가득찼네 / 고향산천 돌아오면 / 부모자식 반가와라 / (중략) 울고간다 울릉도야 / 여기영차 배절이야 / (이하 생략)

거문도인의 울릉도 입도 목적이 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강치 기름, 생필품 재료 등을 얻기 위한 목적도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거문도 내에 울릉도에서 벌목해 온 목재로 지은 집들이 매우 많았고, 주로 지역에서 형편이 좋은 집들이 이에 해당했다고 한다. 대들보, 기둥, 마루에 울릉도 귀목이나 노간주를 썼고 목재의 질이 좋아 근래까지 남아있었으나, 십여 년 전에 모두 철거했다고 한다.

“...(거문도 민가는 주변 어느 지역과 관련성이 깊은가에 대한 질문) 이 근처 고흥에 거문도나 발포 쪽 집이 여기 거문도 집하고 많이 비슷하지. 예전에 왜놈 노략질이 심해서 살 수가 없었으니까.. 다 가까운 육지나 다른 섬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한참 후에 조용해지고 다시 들어왔어. 그러니 옛날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간 고흥이나 순천 낙안 쪽이 우리 모체라 봐야지.. 그래서 여기 집도 고흥이나 순천 쪽 집하고 비슷하게 짓는데, 날씨가 여기만의 특성이 있으니까는 거기 맞춰서 집을 지었지. 뭐 울릉도도 뿌리는 여기여도 거기 여건으로 또 맞춰 지었을라니까..

그리고 거문도 나무들이 오래 가지를 못 해. 그러니 여기서도 울릉도 나무를 좋아했지. 울릉도꺼 없고 정 급하면 고흥 가서 싣고 오고 그랬어. 가춨배¹⁴⁾ 들어오는 날이 쌀밥 먹는 날이야. 벚집을 장흥, 고흥 이런데서 많이 사왔어. 여기(거문도)는 논이 너무 작으니까..

...(전업 목수 존재 여부에 대해) 우리 어릴 때 배 만들고 집 만들고 하던 어른들 있었지. 배 만드는 목수들은 자기 집 자기가 다 짓고 그랬어. 그 분들이 울릉도로 가고 그랬던 거야 ...”

홍양 도서는 오랜 시간 왜구의 노략질로 한 동안 모든 주민들을 피신시키는 공도(空島)정책을 거듭하였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종식된 이후 한참이 지난 17~18세기에 다시 섬으로 인구가 유입되었다. 결국 이때의 이주자들이 지금의 ‘입도조’가 되었고, 현재의 홍양 도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실질적 주역이 되었다.¹⁵⁾ 홍양 도서로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은 인근의 고흥·장흥과 순천지역이었기 때문에 문화뿐만 아니라 건축 양식 또한 고흥·장흥·순천 지역과 관련이 깊고, 면담자의 증언처럼 홍양 도서만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적절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봄에 울릉도로 입도하여 가을에 다시 거문도로 오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부는 울릉도에 남아서 사유 재산이나 집을 지키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옛날에는 여기 홍양 사람 아니면 거기(울릉도) 잘 가지도 못 했더니까. 그대로 두고 와도 별 탈 없다고들 해. 다 돌아왔다고 봐야지. 거기서 죽은 사람도 같이 와. 봄·여름·가을 울릉도에 머문 동안 죽은 사람은 거기에서 ‘반장’을 해. 관을 짠 다음 그 안에 소금으로 염을 해서 배에 싣고 거문도로 같이 와. 여기 홍양 사람은 무조건 고향에 다시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냈어..

...(울릉도 민가는 귀틀구조인데, 거문도는 심벽구조이다. 이런 차이에 대한 질문을 하자) 여기는 울릉도처럼 나무가 많지를 못했으니까 흙벽이지. 흙벽을 주로 하고, 잘 사는 집은 회벽칠을 하는거야. 집 본체는 흙벽에다가 그 외벽은 돌로 했어. 근데 울릉도는 나무가 많으니까. 게다가 여기처럼 품 많이 드는 흙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훨씬 손이 많이 가잖아. 나무로 귀틀하는 게 편하고 좋지. 보여준 도면(필자가 보여준 울릉도 민가 평면)과 매한가지인데, 밖에 벽만 나무나 돌이나 그 차이야. 또 울릉도는 눈이 많잖아. 그거 견딜려면 당연히 귀틀 해야지. 흙벽은 그거 못 해.(적설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

...(마구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질문) 소는 보물 1호잖아. 거문도 이 작은 섬에 소가 얼마나 귀해. 자식이나 똑같지. 그래서 옛날에 마구를 다 몸체 안에 뒀어. 정지 옆에 말이야. 그러다 시간 지나고 점점 밖에 다 뺀 거지. 나중에나 되니 여기 300백 여남은 집 중에 100여 집에 소가 있었지. 마구에 농기구도 가져다 놓고, 돼지도 키우고 그랬지 ...”

“...거문도 집에 사람 자는 방 옆에 하나 더 있는 이 방은 마루로 만들어서 제방(제실)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 조상 모시는 거지. 그리고 좀 사는 집은 ‘—자 집’이 아니고 ‘ㄱ자 집’이 됐지. 두 채를 붙여서 ‘ㄱ’자로 만들기도 하고, 서로 띄워 놓기도 하고...”

겨울철 울릉도에 남은 가옥들에 대한 특별한 유지 관리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적설량이 많은 울릉도에서는 보식 가구가 적절하지 않고, 귀틀식 구조가 합리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문도 민가가 귀틀식이 아닌 보식인 것은 이들 지역이 섬을 비우고 이주했던 인근 고흥·장흥·순천지역 민가가 보편적으로 보식 구조인 점과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고, 풍부하지 않은 현지 식생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위 증언에서 ‘제방’은 호남지방에서 많이 보이는 ‘마래’와 유사하며 수장과 성소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일반적인 ‘ㄱ’자 집으로 실의 확장이 이 지역 민가에도 이뤄졌으며, 소가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축사가 몸체에 포함된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13) 이 같은 내용은 주간동아 2008. 「거문도와 울릉도 100년 넘는 인연 아시나요」 기사 등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다.

14) 가춨배 : 가초배라고도 하며, 현지에서는 이영·벚집 등을 싣고 거문도로 들어온 배를 뜻함

15)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162쪽

○ 이○순(1936년생)

“... 우리 조부가 거문도에서 14살 때 울릉도로 갔어. 어 유랑 미역이랑 나무 때문에 갔지. 순풍타고 10~20명씩 한배 타고 많이 갔어. 조부는 그때 화장(주방장) 역할로 갔어. 나머지 목수가 많았지. 그리고 처음부터 울릉도로 바로 간 게 아니야. 여기서 출발해서 노량부터 뭐 거제, 경상도까지 군데군데 거쳐 가지. 가다보면 미역이든 뭐 든 채취를 하면서 가야 하는데, 무인도가 아닌 이상 죄 다 주인이 있잖아. 그러니 가다가다 보니 주인 없는 무 인도 울릉도까지 간 거야. 그리고 거기 간 사람들이 배 (울릉도 목재로 만든 새로운 배)든 뭐든 돈 되는 것들을 많이 해오니까, 나중에는 이 근처 섬사람들도 합세해서 가게 된 거야. 그러다가 점점 배도 커지고. 바다 바람도 잘 보고..”

“...여기 거문도 말고, 주변 섬들은 반농반어가 대부분 인데, 거문도는 땅이 뒤틀어서 농사가 안 되는 곳이야. 그러니 어업이랑 배타는 게(항해술) 옛날부터 다른 섬들보다 훨씬 더 발전 된 거지. 그러니 울릉도까지 갈 수 있었던 거야.”

“(울릉도 민가 사진과 도면을 보여주자) 이거 까닥집이 네. 이거 까닥집이야. 이런 집을 우리 흥양 말로 까닥집 이라 그래.¹⁶⁾ 거문도 옛날 집은 볼 것도 없이 전부 이 거야. 다 그랬지. 우린 이 외벽(우데기를 가리키며)을 돌 로 쌓지. 여긴 돌이 많으니까. 전부 그래. 여기 이 공간 (축담-반내부적 공간)은 집에 잡다한 살림살이 놓지. 또 사람 자는 방 앞엔 사람이 왔다갔다 내왕해야하니까 풍 채를 많이 걸쳤지. 들었다 놔다 할 수 있게 했어. 풍채 대도 울릉도나 고흥에서 가져와서 썼어. 풍채대 이게 비도 맞고 그래야하니까 튼실해야 하거든. 거문도에는 재료가 잘 안 나니까.. 쭈욱 세장 정도 겹쳐서 비, 바람 막았지. 날 견히면 처마 밑에다 묶어놓고, 비 오면 다시 내리지. 외양간도 나 젊을 적까지만 해도 본체 안에 한 쪽에 두고, 그 옆에 부엌 두고, 방 두고. 자네가 보여준 이거(울릉도 민가 도면과 사진)랑 매한가지야. 까닥집 싹 다 이런 식이라고. 쌀이나 뭐 나무 같은 거 여기 축 담 옆에다 놓고 다들 그리 살았지”

“...아. 고종이 개척하고 울릉도 첫 도감이 거문도 사람 이야. 오성일이라고 거문도 서도 사람이라고.”

당시 오고 갔던 집단의 규모와 목수 외 구성원의 존재, 거문도인의 항해술 발달 배경과 울릉도 입도 목 적, 주변 섬 사람들의 합류 정황, 2중 외피를 가진 집을 거문도 용어로 ‘까닥집’이라 불렀으며, 대부분 가옥이 이에 해당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거문도 민가 역시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2중 외피를 가졌고 외피와 방 사이(축담영역)에는 가재도구를 뒀으며, “마구+부엌 (정지)+방”의 평면형식이 기본구조였다.

16) 본 면담은 거문도 덕촌 마을회관(노인정)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면담자 뿐 아니라 주변 3인 역시 까닥집임을 증언하였다.

거문도 현지에서 4대째 살고 있는 해설사의 설명에 의하면, 까닥집에서 ‘까닥’은 현지 방언으로써 ‘깎다구’ 혹은 ‘까따구(까다구)’, 즉 ‘깎질’을 뜻한다. 이는 곧 가 옥(몸채)을 단단히 보호해주는 ‘깎질’역할을 하는 ‘2중 외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곳의 까닥집은 ‘2중 외피를 지닌 보편적 지역 민가’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섬 내에 돌이 많아 돌로 외벽을 쌓았다는 것은 이후 울릉도 초기 민가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성이며, 현존하는 울릉도 나리동 투막집에서도 돌 우데기의 흔적이 <그림 4>와 같이 남아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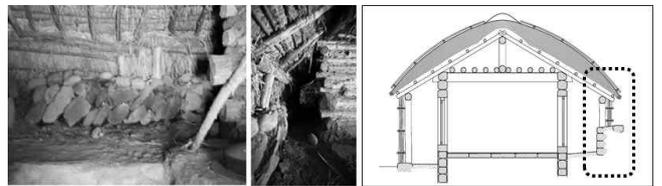


그림 4. 현존 울릉도 나리동 민가의 우데기(하부: 돌)

또한, 울릉도 첫 도감이 거문도 사람(오성일)이라는 것은 『울릉군지』 등 여러 사료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는 내용이며, 개척 초기 중요한 요직에 거문도인이 임명되었다는 것은 당시 울릉도에서 흥양 출신자들의 위상과 존재감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 안○전(1939년생)

“...여기 굴뚝은 세 종류야. 싸게 하는 방법은 깔대라고, 큰 대나무 있잖아. 그걸 속을 쳐서 통을 내는거야. 그걸 로 굴뚝하기도 했지. 둘째는 나무로 만드는 방법이지. 돌로 짜게서 흙을 판 다음에 돌을 서로 다시 묶는거야. 그걸로 굴뚝을 만들었어. 마지막은 귀목 같은 걸 속을 파내는 거야. 그걸 통째로 굴뚝으로 썼지.”

...옛날 우리집 축담(울릉도에서는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 이나, 이 곳에서는 담 자체를 뜻함)은 돌을 한단 쌓고, 사이에 황토를 한줌 넣고, 또 돌 놓고 그렇게 축담을 쌓 았지. 담을 그렇게 쌓고 바깥이나 안쪽에 황토를 덧바르 기도 하고 안 바르기도 하고 그래. 축담 안에 기둥을 세 운 집도 있었고, 기둥을 안 넣은 집도 있었지. 이렇게 하면 확실히 따뜻해. 바람도 덜 통하고, 벽이 2중이잖아. (축담의 너비에 대한 질문) 그 축담하고 내벽하고 거리는 4자에서 6자 정도 됐지 ...”

울릉도에 현존하는 나리동 투막집 배면 굴뚝이 위 증언의 세 번째 형식에 해당한다. 또 이 곳 면담자들이 공통적 으로 축담을 ‘담’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거문도 에서 담을 지칭하던 ‘축담/쪽담’ 용어가 훗날 울릉도로



그림 5. 현 나리동 투막집 배면 굴뚝

이어져 사용되다가, 점차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형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당시 폭우·폭설 등이 잦은 울릉도 환경에서 2중 외피 구조는 전라도

이외 출신자들(경상도 등)에게도 점차 중요한 건축요소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2중 외피로 활용된 돌담이 현재에도 홍양에 <그림 6>과 같이 상당수 남아있다.



그림 6. 현재까지 존재하는 거문도 덕촌 및 초도의 돌담

3-2-3. 해양문화사 연구자 조사자료 검토¹⁷⁾

○ 최○식(1923년생)

“...(경주가 고향인데) 동학난 때 여러 가족이 모여서 울릉도로 왔지요. 낫선¹⁸⁾이라고, 전라도배 타고 왔어요. 전라도 배가 많으니..

...해방 때, 발동선(동력을 이용한 배) 가진 사람은 한국인은 거의 없었고, 일본사람들 건데 고용원을 한국인이 했지요. 어업을 한국사람이 배워가지고 나중에 배도 만들고..

...울릉도 사람이 일본 시마네현에 가서 유학도 제법 다녀고, 배도 지어오고, 스키목도 가져오고..

...처음 개척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전히 농업을 하고 있었어요.(경상도 출신자들) ... 어업 같은 것은 천한 것으로 보았기에 높은 곳으로 가고 해안으로 새로 온 사람으로 했지요. 경상도 개척민은 해안에 거의 없었어요.”

울릉도로의 입도 방법과 당시 울릉도로 들어오는 전라도 사람의 비중, 당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살아야 했던 일부 조선인들과 그런 도중에 어업이나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는 점, 그리고 초기 정착민들의 입지가 출신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나뉘었음을 기존 증언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호남

17) 본 내용은 주강현, 『울릉도 개척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의 구술자료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건축 또는 주민 생활, 전라도인들 관련 자료 등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이다.

18) 낫선: 나선(羅船)을 뜻함. 전라도 배.

출신자(전남 해안 출신자)들은 익숙한 바다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해안에 자리 잡았고, 어업을 천시하고 농경 생활을 해온 그 밖의 출신자(주로 경상도)들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입지했음을 알 수 있다. 해안에 자리 잡은 전남인들은 <그림 7>과 같이 가옥 간 거리가 가까운 집촌 형태로 군락을 이뤘으나, 내륙에 자리 잡은 타지역 출신자들은 <그림 1>과 같이 산촌 경향을 띠다가 이후 점차 집촌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4. 울릉도 민가와 모섬(母島) 민가의 상관성

4-1. 우데기 관련 분석

학계에서조차 현재까지 울릉도 민가 우데기는 주로 몸채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앞서 다수의 면담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우데기는 몸체에 부분적으로 설치되다가, 현지의 혹독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 가옥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초기 우데기는 외곽 담장과 차별되는 별도 시설로 만들지 않고, 홍양 도서 민가와 같이 우데기가 외곽 담 역할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사료가 아래 1917년에 촬영된 울릉도 대풍감(현포리)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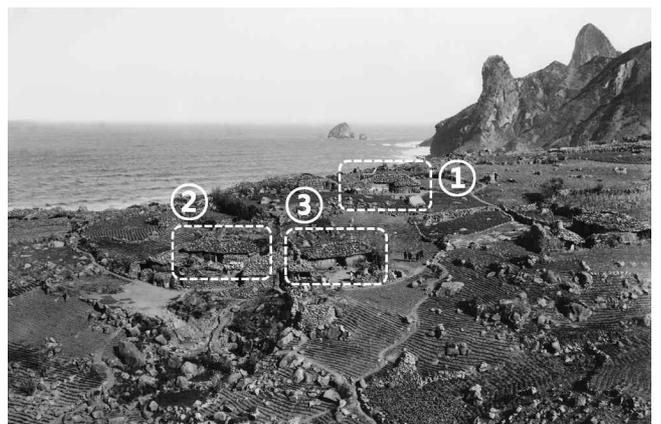


그림 7. 울릉도 대풍감(현포리) 전경 (1917년 도리이 류조 촬영)

사진에서 총 4채의 가옥이 확인되나, 가옥의 배치상 우데기 형태가 정확히 보이는 가옥은 위 ①, ②, ③ 가옥 3채이며, 이를 확대해 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민가 ①, ②, ③의 확대 모습

가옥들의 모습을 보면 가옥마다 우데기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 별도의 외곽 담장 없이 돌을 처마 끝단에 맞춰 쌓아 우데기로 활용하는 방식(①우측, ②우측), 우데기 일부를 석새·수수 등으로 구성하는 방식(①좌측), 전면 우데기 모두를 석새·수수 등으로 만드는 방식(③) 등 다양한 우데기 축조 방식이 개척 초기에 존재한 것이다. 또한, 우데기가 없는 곳은 보조 기둥을 처마 아래에 여럿 두어 구조를 보강한 경우(②의 좌측)도 존재했다.

또한 촬영 당시까지 여전히 돌 우데기가 다수 존재했으며, 이 돌 우데기는 홍양 도서와 같이 외곽 담 역할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의 우데기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1917년 울릉도 대풍감 민가 우데기 현황

가 옥	우데기 (전면)		별도 외곽 담
①	좌) 석새·수수 등	우) 돌	없 음
②	좌) 보조기둥만 설치 (우데기 없음)	우) 돌	없 음
③	좌) 석새·수수 등	우) 석새·수수 등	없 음

정리하면 개척 직후 울릉도는 전남 홍양 도서와 같이 돌 우데기가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적어도 <그림 7>이 촬영된 1917년 이전에 이미 우데기 재료가 돌에서 석새·수수 등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검토한 신문기사¹⁹⁾에 1909년도 울릉도 내 조선인 인구가 4천여 명이었던 것이 뒤이은 기사(1928)²⁰⁾에서는 약 1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으로 볼 때 위 사진이 촬영된 1917년경은 폭발적인 인구 유입과 신축 민가의 증가, 건축 재료의 확보 경쟁, 현지 폭설 경험, 일본인들의 영향 등 매우 복합적인 상황 속에 다양한 건축적 시도와 변화가 시도된 시기이다.

이 시기를 거쳐 1930년대에 울릉도 산림 남벌 문제가 대두되자 일시적으로 우데기와 지붕 재료가 다시 석새·수수 등으로 변화하였고, 이후 일본인들이 완전히 섬 밖으로 나가게 되는 20세기 중반부터 섬 내에 목재 활용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일부였던 너와지붕과 널판 우데기가 섬 전역에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8>의 ①, ②와 유사한 형식의 외피구조가 거문도 사료 조사에도 발견되었다. <그림 9>는 19세기 말 거문도에서 촬영된 민가인데, 여인의 뒤편에 보이는 것이 민가의 외곽 담이자 2중 외피이다. 약 5자가량

19) 대한매일신보(1909.5.8.)

20) 동아일보(1928.9.12.)



그림 9. 거문도 민가 (19세기 말 영국군 촬영)

돌담을 쌓고, 그 위로 2~3자가량 흙벽을 더 쌓아 처마 하단을 받치고 있다. 또 옥개부 모서리(추녀)를 받치는 기둥을 돌담 내에 설치하여 구조를 보강하였다.

4-2. 평면 형식 검토

개척 초기 울릉도 민가의 일반적 형태는 <그림 10>과 같이 ‘정지+방+방(잠실)’을 기본으로 하는 ‘—’자형 홑집이다. 이를 기본으로 형편에 따라 <그림 11>과 같이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실이 확장되며, 평면을 둘러싸고 있는 우데기는 앞서 면담자료와 사진 등으로 살펴보았듯 초기에는 부분적으로 설치되었다가 후에 전체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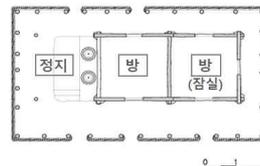


그림 10. 나리동 투막집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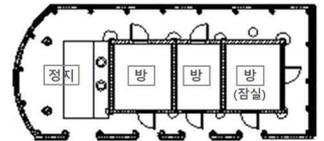


그림 11. 정기록 민가²²⁾

한편 <그림 10>, <그림 11>과 같은 ‘—’자형 평면은 울릉도 민가가 태백산간 민가와 관련이 깊다는 일부 학설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오히려 ‘—’자형 홑집으로부터 확장이 이뤄지는 홍양 도서 민가의 경우와 유사하다.²³⁾

한반도에 존재하는 오막살이 민가가 ‘—’자형 형태가 많으나, 2중 외피를 가진 ‘—’자형 평면이 전남 도서와 낙안, 그리고 울릉도 민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 아니라, 이들 지역이 수백 년 해상을 통해 교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12> 가옥은 ‘방(마래)+방+정지+방’으로 구성된 홍양 도서 민가의 한 사례²⁴⁾인데,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몸체의 외벽으로 인해 만들어진 반 내부적 공간이다.(까닥집 - 2중 외피 구조)

21)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182호인 본 민가는 1940년경 건립된 민가로, 이미 우데기가 몸체 전면으로 확장이 완료된 시점이다.

22) 김찬영, 「울릉도 민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15, No.5, 2004, 114쪽

23) 태백산간 민가는 ‘—’자형 홑집인 울릉도 민가와 달리 대부분 겹집 형식(‘田’자형)이 일반적이다.

24) 필자 실측 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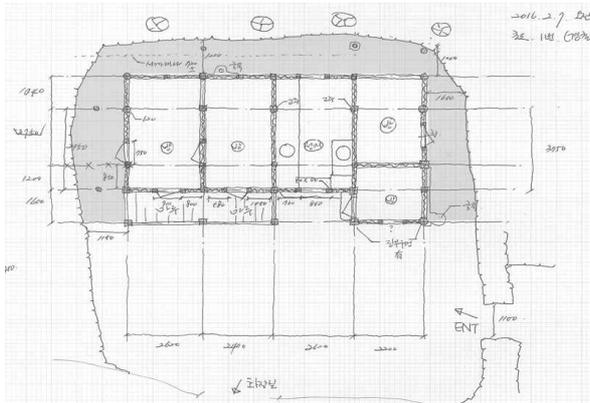


그림 12. 전남 홍양 초도 경촌리 1 민가

이 반 내부적 공간의 상부는 울릉도 민가 축담과 같이 몸채 처마로 덮인 형태이며,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고 외부로부터 몸채를 1차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 공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몸채 기둥 열의 연장선에 보조 기둥을 두어 처마 하부를 보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반 내부적 공간은 울릉도는 물론이고, 아래 도면과 같이 홍양 도서 조사대상 민가 모두에서 발견되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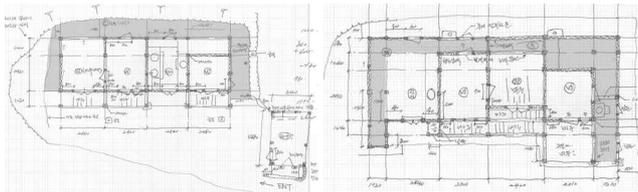


그림 13. 전남 초도 민가 1(좌), 초도 민가 2(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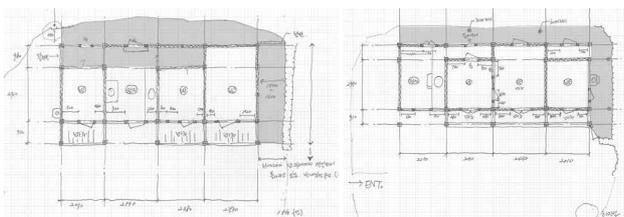


그림 14. 전남 초도 민가 3(좌), 거문도 덕촌 민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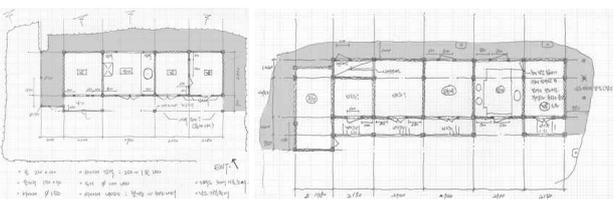


그림 15. 전남 거문도 삼산면 민가(좌), 동도리 민가(우)

25) 면담자료에서 살펴보았듯 현지에서는 이를 까닥집이라 불렀으며, 전남 홍양 도서 지역의 일반적 살림집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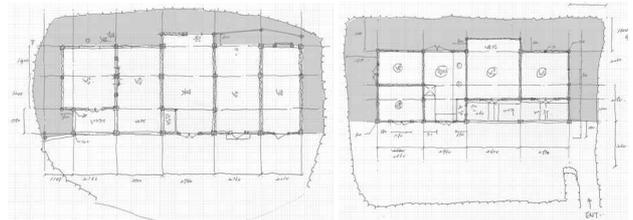


그림 16. 전남 죽도 민가 1(좌), 죽도 민가 2(우)

한편, 홍양 도서 민가의 몸채에는 호남지역 민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공간인 ‘마래’가 대부분 존재하는데, 정지(부엌)를 기점으로 마래 옆으로는 더 이상 ‘실’이 구성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는 ‘마래’가 단순한 수장공간을 넘어 체례기능을 겸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조상의 위패를 모시거나, 제를 지내는 장소인 마래가 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그 옆으로는 더 이상의 실(室)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실 공간 구성이 울릉도 개척 초기에 전라도에서 이주한 이들의 민가에도 존재했다는 점이다.²⁶⁾ 다만, 개척 당시 울릉도에 급속히 퍼진 양잠업(누에)을 위한 실이 가옥 내에 필요했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 등에 의해 마래의 성소적 기능이 점차 생산적 공간(잠실)으로 변화하여, 중국에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호남의 ‘수장+체례’의 공간인 ‘마래’가 개척 초기 울릉도로 일부 이어졌으나, 당시 개척민의 생활·경제구조 등 현지 상황에 의해 ‘생산(누에)기능 + 간접 체례’의 영역으로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구의 몸채 편입 경향 역시 두 지역 사이의 영향 관계를 뒷받침 해주는 요소이다. 이러한 두 지역 민가의 여러 공통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홍양 도서 지역과 울릉도를 수백 년 오간 이들에 의한 해양 교류 사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근대기 울릉도 민가는 필지 내에 부속채가 발달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당시 이주해 온 개척민들 대다수가 궁핍한 생활을 했던 하층민이었던 관계로 부속채를 지을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의 매년 반복되는 폭설 시(1m 이상) 부속채로의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속채를 두는 형식보다 몸채에서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폐쇄적 가옥 형태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26) 앞서 살핀 박○수 옹의 증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상으로 홍양 도서와 근대기 울릉도 민가와 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종의 울릉도 개척령(1883년) 전후 울릉도에는 전남 해안 홍양 도서인들이 끊임없이 입도(入島)하였으며, 그들의 생활방식과 건축양식이 울릉도 현지 환경에 맞게 토착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홍양 도서 민가는 울릉도 민가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우데기(2중 외피구조)와 이로 인해 형성된 반내부적 공간(축담)의 모체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지역 민가의 실 구성(간살이)유사성과 ‘마래’의 기능 변화 등은 특정 지역의 주거 양식이 타 지역의 기후와 생업에 맞춰 적절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사례이다. 이는 두 지역 간에 수백 년 동안 이어진 해양 문화교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셋째, 홍양 도서 민가와 울릉도 민가가 서로 유사한 평면 구성형식을 보이거나, 구조가 ‘보식 구조’와 ‘귀틀 구조’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지역의 식생 환경과 기후 차이(폭설), 시공 용이성 등에 의한 변용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울릉도 개척 초기 ‘전남 해안 출신자들’과 ‘그 밖 지역 출신자들’의 민가는 입지(해안/내륙)를 비롯하여 건축양식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이후 울릉도 내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그 차이가 점차 사라지고 울릉도 민가의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울릉도와 홍양 도서 지역 민가에 관해 흩어져있던 여러 자료들을 모으는 한편, 현지 주민 면담과 실측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물이다. 본 논문을 통한 연구 성과가 근대기 울릉도 민가의 정체성과 특성을 밝히고, 전남 홍양 도서 민가의 가치를 알리는 데에 작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1. 주강현, 『울릉도 개척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2. 문정민·장현덕, 『울릉도 민가 형성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11.
3.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 1882.
4. 윤명철,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2014.
5.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6. 김찬영, 「울릉도 민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15, No.5, 2004

접수(2017. 12. 15)

수정(1차: 2017. 1. 23)

게재확정(2018. 1. 30)ㄴ